

전남도,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속도

신안 집적화단지 추진 민관협 개최
위원 추가 위촉...사업계획 등 논의
내년 상반기 1단계 3.2GW 지정
"기업유치 등 재생에너지산업 선도"

전남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4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민관협의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1단계 3.2GW 규모 지정 실현을 목표로 사업 계획 추진 등에 머리를 맞댔다.

협의회에서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대해 송전선로 관련 예정 경과지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변경안과 전력계통협의체 구성·운영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 위촉된 위원에는 송전선로 예정 경과 지역 주민 대표와 부단체장이 포함돼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사업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이후 산업부와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를 반영, 풍황계측기가 설치되

지 않은 2개 단지를 제외해 1단계 집적화단지 신청 용량을 3.7GW(12개 단지)에서 3.2GW(10개 단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완됐다.

또한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도록 전력계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협의회에서 주민대표 위원 등은 "송전선로 예정 경과지 주민이 납득할 이익 공유, 지원 등 상생방안을 빠른 시일내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지역 주민이 포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인 소통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전남도는 1단계 3.2GW 사업을 대상으로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3.2GW는 해상풍력 설비용량 기준 세계 5위인 덴마크의 보급실적인 3GW를 웃돌며,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 물량인 124MW의 25배에 이르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확정

된 사업계획을 연내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집적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창환 부지사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재생에너지100(RE100),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주민

과 소통하고 산업부와 공조해 집적화단지를 신속히 지정받아 해상풍력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첫 민간 주도 96M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찾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 밝히는 등 국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 축으로서 해상풍력을 강조함에 따라 정부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더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양재원 전남새마을회장 등 새마을지도자 800여 명이 26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4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내빈들과 새마을지도자회 비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KIA 김도영, 2024 KBO리그 '최고의 별' 우뚝

1면서 계속 또 2017시즌 양현종 이후 7년 만에 MVP에 오른 김도영은 구단 통산 10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KIA는 삼성(9회)을 제치고 역대 최다 MVP 배출 구단으로 우뚝 서게 됐다.

김도영은 "MVP라는 큰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신 이범호 감독님과 코치님들께 감사 드린다. KIA라는 명문 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창 시절 감독님들과 늘 응원해 주는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야수 박찬호는 수비상 유격수 부문 2

연패의 영예를 누렸다. 투표 점수 67.5점, 수비 기록 점수 22.5점을 얻은 박찬호는 총점 90.00점으로 오지환(LG·82.50점)과 박성현(SSG·78.75점)을 제치고 2년 연속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투수 제임스 네일과 정해영은 각각 평균자책점과 세이브에서 타이틀을 홀더가 됐다. 네일은 올 시즌 26경기에서 149.1이닝을 소화하며 12승 5패,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했다.

정해영은 올 시즌 53경기에서 50.2이닝을 소화하며 2승 3패 1홀드 31세이브, 평균자책점 2.49를 기록했다.

김 지사 "전남 통합의대, 일반적 의대 증원과 달라"

"의료체계 완결 차원 의료계 설득"
"통합대 성과 날 때까지 적극 지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인내 끝에 대통합에 합의해 통합대학과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제 의료계가 지역으로 완결체계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일반적인 의료계의 증원 반대 논리와는 아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통합대 국립의대는 도민 여론을 잘 수렴해 절차에 따라 신청해달라

는 정부의 요청을 그 이상으로 달성한 것이니만큼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반대 의사를 밝힌 의료계를 설득해 정부가 의과대학 설립 추진 과정에 짐을 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전남도의 통합대학 국립의대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의대 없는 전남을 꼭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립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병원과 지역 민간 중소병원·의료원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고 어려운 병치료도 함께 참여토록 해 수준을 높이는 등 지역 의료계가 피라미드 구조로 완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로 모든 실국이 함께 나서 설득하자"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또 "두 대학의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 조성을 위한 규모화로 미래 교육발전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차원으로, 중앙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통합대학이 성과가 날 때까지 적극 지원하고, 특히 전남도의 여러 지역 발전 프로젝트와 연구개발(R&D)사업에 전략적으로 협업해 대학 경쟁력을 키우자"고 덧붙였다.

김 수출 3억 달러 달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설 현대화와 위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또한 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도록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도뿐만 아니라 수산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대학, 국립 수산과학원 등과 협력해 전방위적인 건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PERON 엑스페론 [Yes, it's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